

# 장성 경기부양·민생안정 48억 긴급편성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예산을 편성한다.

장성군은 4월 초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계비 지급과 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 지원을 위해 총 48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재난 긴급생계비로 34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사업'에 14억원을 책정한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3개월간 월 10만원), 총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밖에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권자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8억원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종사자의 생활경연안



장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7일 군회의실에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생활 지원·생계비 등 48억을 긴급 편성했다. /장성군 제공

## 저소득층 생활지원·생계비 내달 초 신속 집행

## 소상공인 공공요금·택시 종사자 등 지원 확대

정 지원금 4,600만원 등 분야별 신규사업 등을 발굴해 '장성형 민생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방법은 장성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등 사업별 지급방식에 따

군민들이 단시일 내 민생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5일 코로나19 관련 민생예산 등을 포함한 총 330여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바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 나주 발작물 농기계 장기 임대 추진

## 구입비용 절감·일손 부족 해소 등 기대

나주시가 발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파종·정식에서부터 일정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작업을 할 수 있어 발작물 기계화를 제고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다.

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발작물의 규모·집단화된 지역단체, 논 타작물 전환

사업 단체(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지역농협) 등이다. 오는 4월 3일까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농기계 구입가의 20%를 5~8년 동안 분할 납부해야 한다.

기간 만료 시에는 임대 농기계를 반납 또는 잔존가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 사업은 발작물의 기계화 촉진에 물론 일손 부족 현상 해소 등 농가 경영개선과 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나주시가 발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 제공

#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전문박물관 격상

## 국비확보 여건 개선

## 전시·정보 교류 강화

고대 마한제국의 역사적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격상됐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격상으로 국비 확보 여건이 개선돼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국내·외 관계 기관, 학계와의 활발한 정보 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영산강 유역 독자적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의 실체를 조망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복암리 고분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4만2,211㎡ 규모로 지난 2016년 4월 30일 개관했다.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내부. /나주시 제공

지하 1층은 관람 코스인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 영상실이 있고, 지상 1, 2층에는 실내 체험장, 북 카페 등이 조성됐다. 3층은 복암리 고분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단체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체험장과 당나귀 동물농장 등 재미 공간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1998년 국립문화재연구

소와 전남대학교에서 발굴한 국가사적 제404호인 나주 복암리 고분 3호분 외·내부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고분의 크기와 구조를 1대1 비율로 복원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한반도 고대사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주=염규동 기자

## 화순 숲 가꾸기 55억 투입

## 인공조림지·천연림 3,640ha

화순군이 올해 55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숲 가꾸기를 진행한다.

화순군은 29일 "4월부터 12월까지 양질의 목재 생산,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총 3,640ha의 인공 조림지나 천연림으로 조림지 가꾸기(2,640ha), 어린나무 가꾸기(600ha), 큰 나무 가꾸기(400ha)를 추진한다.

또 산림 일자리 창출과 자원화를 위해 36명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을 운영한다.

산물 수집단은 주요 도로변을 잡초와 덩굴 등을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6명의 숲 가꾸기 패트롤을 상시 운영해 각종 산림 피해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숲 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숲을 만들어 주민과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 장흥 탐진강 '황금사철나무' 도난 강력 대처

장흥 탐진강변의 황금사철나무가 절도범의 표적이 되면서 장흥군이 도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흥군은 29일 "탐진강변 큰나무 마을 담뽕 주변과 연산마을 도로변에 식재한 황금사철나무 수십 주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협조로 범인 검거에 나서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수목 도난이 잦은 위치에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수목 절취 금지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필요 시 행사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군 소유의 수목을 불법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흥=이옥현 기자



탐진강변에 식재한 황금사철나무가 도난 당해 화단이 군데군데 비어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작은 나무 단 한그루도 주민들 모두의 것인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단으로 수목을 불법 절취 한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클릭! 고향 속으로



## 화순 이서면 새마을부녀회, 화재피해 주택 청소

화순군 이서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리마을의 한 주택에서 주변 청소와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녀회원들은 화재로 얼룩진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못 쓰게 된 물건들을 수거했다.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했다.

화재피해 주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

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서리마을 이장은 "어려운 때 힘이 돼 준 새마을부녀회원들께 감사하다"며 "피해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 함평군산림조합, 성금 100만원 기탁

함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광우)은 최근 함평군청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함평군산림조합 전 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으로, 기부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광우 조합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평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부금이 마련하게 됐다"며 "마련한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 장흥 장평면지사협, 독거노인 밑반찬 전달

장흥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재능기부 봉사활동 '영양지킴이, 저소득 홀몸어르신 밑반찬 배달'을 실시했다.

반찬은 장평면 대림마을 소재 잔치나라(대표 이오님)에서 직접 만들어 후원했다. 올 한 해 매월 1회(26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

워진 독거노인의 수요가 많아 대상자의 생활 개선 및 안부 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병욱 장평면장은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이오님 대표에게 장평면을 대표해 감사함을 전한다"며 "독거노인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